

남원시 공약사업 추진률 94%

이환주 시장, 5대 분야 30개 사업 마무리·장기사업 해결방안·향후대책 제시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민선6기 4년 차 공약사업을 추진률 94%로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5대 분야 30개 공약사업을 한사업 한사업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며,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및 향후대책을 제시하였다.

민선6기 5대 분야 30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임기 내 목표 대비 94%의 높은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2월말 기준 이행상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완료 7개(23%), 이행 후 계속추진 17개(56%), 정상추진 4개(13%), 장기추진 2개(6%) 사업으로 분류되며, 추진 중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 노력 중에 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민자유치, △문화도시 활성화 △한파우 예술촌, △행복한 혁신교육 특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안전망 구축 7개 사업이며, 이행후계속추진 및 정상추진사업 중 귀농귀촌안정적 정착, 요천100리숲길조성, 창조적농촌만들기, 공공상수도보급확대, 남원예촌, 사매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원시는 공약사업 배심원제 운영으로 주민에게 직접 심의·평가받고 홈페이지운영과 공약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약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민선6기 4년이 되는 올해에는 30개 공약사업 완료도를 더욱더 높이는데 집중하며 현재의 사업추진에 인주하

지 않고 더욱더 발전방안 강구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남원시는 공약관리관리규정 운영,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통한 추진상황 업데이트,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 공약 사항 이행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가장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사업이며, 공약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민들이 공약사업 이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의 집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치유농장' 본격 육성 시동

5개 신규 사업 추진

순창군이 봄 관광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순창만의 6차산업 모델인 '치유농장'의 본격적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치유농장은 순창군이 농업의 치유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깨끗한 환경의 농촌생활에서 건강한 자연법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어가는 농촌체험관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치유의 벗'이란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특성을 반영해 3가지 테마로 농장을 네트워크화 하는 독특한 마케팅 기법을 구사해 효과를 보고 있다.

3가지 테마는 장수와, 뷰티, 치유로 이들 테마로 노화방지, 피부미용,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9개 농장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해부터 10개 농장이 본격 운영 중이다.

군은 올해는 본격적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치유농장상품화 시범사업, 치유농장 품질관리 인증제, 치유프로그램



순창군이 봄 관광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순창만의 6차산업 모델인 '치유농장'의 본격적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운영 전문강사지원, 치유농장 치유효과 검증 임상연구, 치유농업 전문인 육성 교육 등 5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치유농장을 순창 관광의 대표 사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올해 첫 사업으로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장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유 체험농장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치유·체험농장의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장

별 차별화된 치유 및 체험서비스를 개발·적용하기 위한 교육으로 4월까지 진행되는 8회차 16강과 교육 초·중·고 교육이다.

교육은 오는 4월까지 진행되며 자연치유체험, 미술치료프로그램, 지역농산물 활용한 치유체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치유농장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야에서 치유프로그램과 성공사례,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울 수 있게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수상

순창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순창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일자리박람회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대표 일자리를 한곳에 모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1일 진행된 시상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성과 및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모델제시 등을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시상했다.

순창군은 일자리창출을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 실정과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농업인을 발굴·육성·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젊은 농업인 정착기반을 마련한 점이 인정 받았다.

실제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의 청년농부들로 구성된 '더불어농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이 직접 가꾸고 재배한 허브 가공품과 오미자, 생들기름, 목화 등을 선보여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줬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풀려야 하고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가공분야 시범사업장 4분야 5개소 육성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주)는 2018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분야 시범사업장 4분야 5개소를 육성한다. 분야별 사업은 블랙커런트 가공체험을 준비 중인 베리류 가공 상품화 1개소(운봉), 복숭아 생즙 생산 창업을 돕는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송동), 노후화된 가공장비 교체와 포장개선에 비중을 둔 농산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산내), 부각 생산 사업장 리모델링, 오디식혜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농산가공활력화 2개소(주천, 이백)이다.

사업의 첫 단추인 시범사업 대상자 교육과 HACCP 팀장과정 위탁 교육을 2월 중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사업장별 조건을 고려한 창업 컨설팅, 가공시설 장비 및 시설라인 구축, HACCP 인증 준비를 위한 작업장 리모델링 등을 연중 지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사면 행복보장팀, 주거환경정비

지사면 행복보장팀의체(공동위원장 최낙전, 조원열) 위원 15명은 지난 13일 지사면사무소 공무원 10명과 연계해 관내 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알콜성치매로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생계비가 중단된 거동불편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집안에 적체된 각종 폐기물 등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처리해 주었다.

또한 방과 거실,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지사면 행복보장팀의체는 2016년 5월 구성,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목욕봉사 실시,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변 풀베기 제조작업 실시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토종 민물고기 방류

남원시는 요천 승사교 주변에서 토종 민물고기 방류행사를 13일 실시하였다. 이 행사가 공무원 및 내수면 어촌계 회원이 참석하여 6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 은어는 전라북도 수산 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전년도 10월에 인공 채란하여 종묘 생산한 어린 은어로 6개월 정도 사육한 7~8cm 크기의 우량종묘이다.

하천에 점차적으로 서식 개체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사전예방하고 은어 자원을 회복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은어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임실군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018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새학기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캠페인은 임실군청,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경찰서,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생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7개 초·중·고 학교 1,000명 학생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절차와 누구나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리고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본 상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 합시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자기보호방법과 자기조절방법 및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심 민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홍보활동을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 권리증진 및 보호활동 강화 등 청소년 중심의 문화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2018년 한해 동안 꾸준한 캠페인으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